

2026년 6월 29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반복되는 변동성 증폭 장세에서 중심 잡기

이번 주 코스피는 1) 26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2) 미국 6월 고용, ISM 제조업 PMI, 3) 케빈 워시의 의장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애플이 촉발한 메모리 업황 노이즈 확대 여부, 5) 한국 6월 수출, 6)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8,000~8,800pt).

이번주에도 주요 대형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변동성은 단순히 주가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같은 변동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혹은 지난주 후반에 이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지가 관건. 이런 측면에서 6월 고용 서프라이즈 시 또 다시 “연준 긴축 불만 확대”로 증시는 조정 압력에 노출될 소지가 있음. 하지만 6월 FOMC를 통해 연준의 정책 초점이 고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한 만큼, 6월 고용 서프라이즈 시나리오의 현실화가 지난 6월 2주차와 같은 주가 조정을 초래할 확률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6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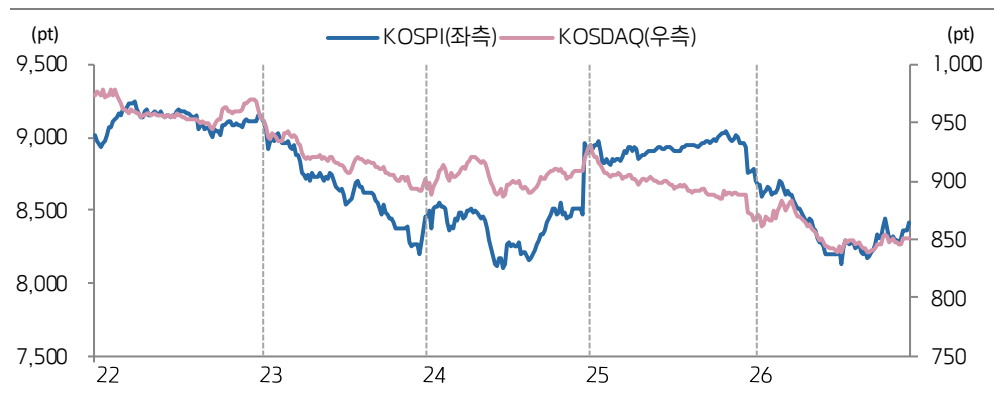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미·이란 종전 합의와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주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반도체 차익실현 매물이 반복적으로 출회되며 서킷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된 끝에 하락 마감 (KOSPI -7.08%, KOSDAQ -11.92%).

코스피는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과 SK하이닉스 신고가 행진에 힘입어 주 초반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 그러나 AI 수익성 회의론과 반도체 고점론이 재부각되며 분위기는 빠르게 반전.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지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고, 주중 서킷브레이커도 두 차례 발동. 마이크론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공시가 반등 재료로 작용했으나,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가 다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며 코스피는 8,411.21pt로 한 주를 마감. 코스닥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심화되며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시그널과 외국인 수급이 증시 방향성을 좌우.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고, AI·HBM 수요 확대 기대도 반도체 업종 낙관론을 강화. 특히 마이크론의 역대급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메모리 업황 고점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국내외 증권사의 코스피 목표치 상향도 이어짐. 그러나 외국인은 지난주 16.6조 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단기 급등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성 매도세를 지속. 특히 매도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업종별로 유통(-2.33%), 전기/가스(-3.27%), 부동산(-3.48%), 통신(-3.49%), 제약(-3.7%)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송장비/부품(-17.17%), 기계/장비(-16.08%), 오락/문화(-15.61%), 건설(-14.65%), 증권(-14.52%)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16조 5,718억원)은 유통(-2,827억원), IT 서비스(-189억원), 부동산(-67억원), 섬유/의류(-46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3조 610억원)은 기계/장비(-2,258억원), 금융(-2,222억원), IT 서비스(-1,752억원), 금속(-877억원)순으로 순매도.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2026년 6월 29일

KIWOOM WEEKLY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월 29일	월	미국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6월	-	0.4
		발언	리치몬드 연은 총재			
6월 30일	화	한국	산업생산 (YoY)	5월	-	1.5%
		중국	제조업 PMI	6월	50.1	50.0
			서비스업 PMI	6월	49.9	50.1
		미국	JOLTs 구인 건수	5월	7,360K	7,618K
			CB 소비자기대지수	6월	94.2	93.1
7월 1일	수	한국	무역수지	6월	\$32.71B	\$27.04B
			수출 (YoY)	6월	60.7-%	53.4%
			수입 (YoY)	6월	24.5%	20.7%
		중국	레이팅독 제조업 PMI	6월	51.9	51.8
		EU	CPI (YoY, 잠정치)	6월	-	3.2%
		미국	ADP 신규 고용자수	6월	110k	122K
			ISM 제조업지수	6월	53.6	54.0
		발언	워시 미 연준의장			
		휴장	홍콩(반환기념일)			
		행사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행사	코스닥 커넥트 2026(1~3 일)			
		실적	나이키			
		정책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			
7월 2일	목	한국	CPI (YoY)	6월	3.2%	3.1%
		미국	비농업고용자수 변동	6월	125K	172K
			실업률	6월	4.3%	4.3%
			시간당평균임금(MoM)	6월	0.3%	0.3%
			제조업 수주 (MoM)	5월	-	4.8%
		행사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7월 3일	금	중국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6월	-	54.4
		휴장	미국(독립기념일)			
		정책	Trump Accounts 공식 출범(4 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26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2) 미국 6월 고용, ISM 제조업 PMI, 3) 케빈 워시 의장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애플이 촉발한 메모리 업황 노이즈 확대 여부, 5) 한국 6월 수출, 6)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전망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8,000~8,800pt).

26일(금) 미국 증시는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발 악재 여진 지속, 오픈 AI 상장 연기설 등으로 마이크로(-7.0%) 포함 반도체주들이 급락했으나, 유가 약세, 금리 하락 등이 여타 업종의 순환매를 유도하면서 제한된 하락세로 마감(다우 -0.1%, S&P500 -0.1%, 나스닥 -0.2%).

지난주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전세계 주도주인 반도체 주들의 “수급 쏠림 -> 수급 이탈 -> 수급 쏠림”을 반복한 여파로 빈번한 주가 폭등락을 경험해 왔던 상태. 이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주도주 포함 현재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애플발 노이즈(제품 가격 인상, 미 정부에 중국 CXMT 메모리 사용 요청 등)까지 생성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주말 중 미국과 이란의 보복 공습 및 반격 소식이 전해지는 등 미-이란 전쟁 노이즈가 다시 생성되고 있는 상태(현재 외신에 의하면, 양국은 상호 공격 중단키로 했으며 30일에 호르무즈 해협 분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이번주에도 주요 대형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다만, 최근 변동성은 단순히 주가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같은 변동성이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지 혹은 지난주 후반에 이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지가 관건.

매크로 상 주요 이벤트는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이 해당. 지난 6월 2주차에 코스피의 서킷브레이크 발동 포함 주요국 증시의 조정을 초래했던 배경이 5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연준의 긴축 우려였기 때문. 더욱이 6월 신규 고용 컨센서스가 12.5만건(vs 5월 17.2만건)으로 전달보다 둔화될 것으로 형성되기는 했지만, 지난 2~5월 신규 고용이 연속 상방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이런 측면에서 6월 고용 서프라이즈 시 또 다시 “연준 긴축 불안 확대”로 증시는 조정 압력에 노출될 소지가 있음. 하지만 6월 FOMC를 통해 연준의 정책 초점이 고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한 만큼, 6월 고용 서프라이즈 시나리오의 현실화가 지난 6월 2주차와 같은 주가 조정을 초래할 확률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6월 고용보다 먼저 예정된 1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도 마찬가지. 6월 FOMC 이후 WTI가 70달러대로 레벨 다운되는 등 매크로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았기에,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즉 증시 중립적인 재료의 연설에 그칠 것으로 판단.

그 밖에 미국 6월 ISM 제조업 PMI(53.6 vs 컨센 54.0)도 대기 중에 있으나, 올해 들어 해당 지표가 증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이보다는 한국의 6월 수출 결과가 국내외 반도체 포함 전세계 증시 향방에 더 중요한 이벤트. 현재 6월 전체 수출 컨센서스는 +60.7%(YoY)로 5월(+53.4%)에 비해 수출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증

2026년 6월 29일

KIWOOM WEEKLY

시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음.

사실 이번 6월 수출은 전체 실적 이외에도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의 수출 증가율 +100%대 중후반 유지 여부가 메인 관전 포인트(반도체 수출, YoY 3월 +151% → 4월 +174% → 5월 +169%), 애플의 제품가격 인상, 오픈 AI 상장 연기설 등이 만들어낸 메모리 가격 상승세 중단 및 업황 피크아웃 노이즈를 해소시킬 수 있는 환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를 고려 시 6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의 지속력에 전세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코스닥 시장의 향방도 주중 관심 변수가 될 예정. 지난주 코스피(-7.1%)보다 더 크게 급락을 맞은 코스닥(-11.9%)의 연중 고점 대비 하락률(MDD)이 약 31%(vs 코스피 MDD -7.8%)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극도로 냉각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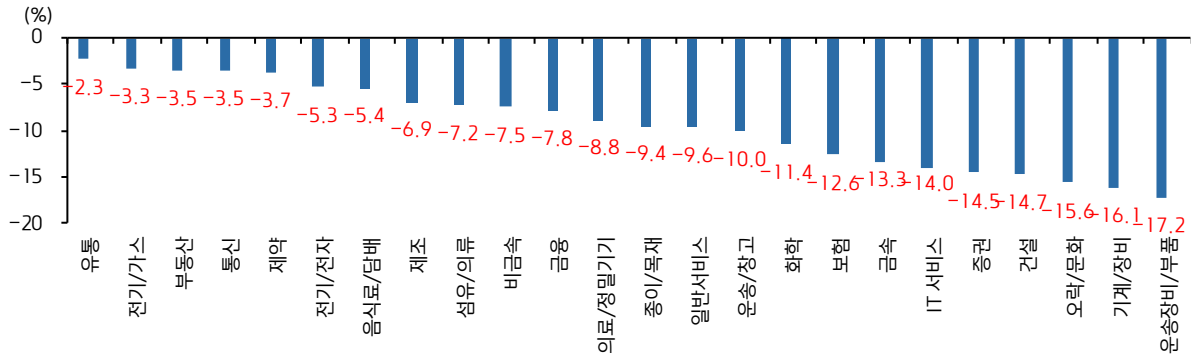
코스닥이 고점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2차전지 과열 붕괴 등 대형 외부 충격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인만큼, 이번주는 낙폭 과대 인식으로 기술적 반등에 나설 여지가 있음. 또 코스닥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므로,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7월 1~3일)에서 승강제 도입 등 정책 기대감 확산 여부가 해당 시장의 반등 강도를 결정할 전망.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8,411.21	-5.8	-7.1	4.5	99.6
대형주	9,375.63	-6.0	-6.8	6.7	114.2
중형주	3,959.30	-3.1	-10.8	-19.7	6.4
소형주	2,193.29	-2.4	-9.1	-20.7	-12.9
코스피 200	1,366.49	-6.0	-6.4	8.4	125.5
코스닥	851.37	-4.1	-11.9	-27.4	-8.0
대형주	2,225.34	-4.1	-10.7	-23.2	-1.2
중형주	820.24	-4.3	-13.8	-32.0	-8.8
소형주	2,207.72	-3.6	-12.7	-29.7	-14.2
코스닥 150	1,540.77	-4.0	-10.5	-23.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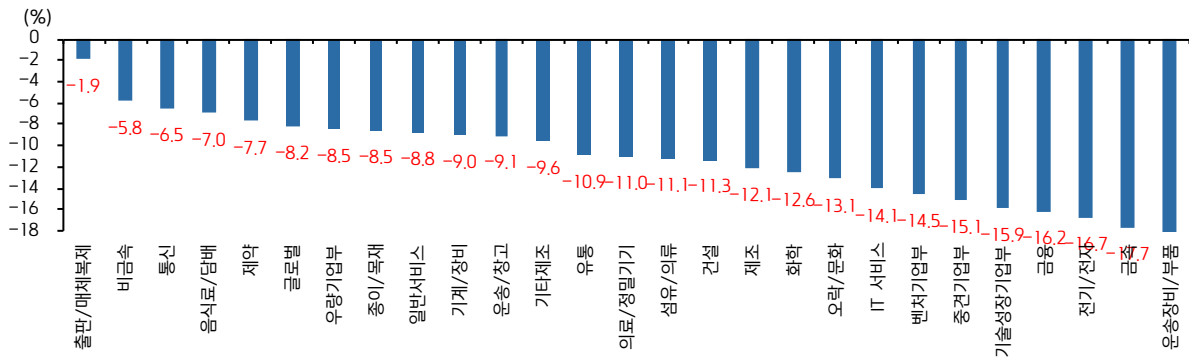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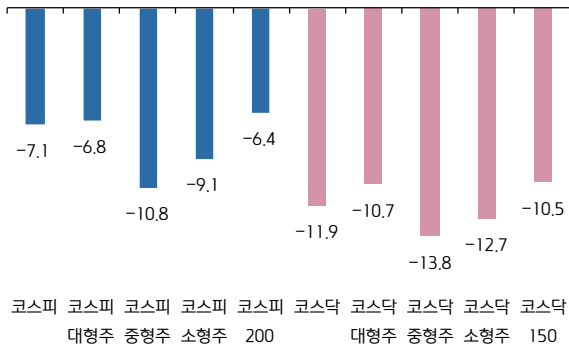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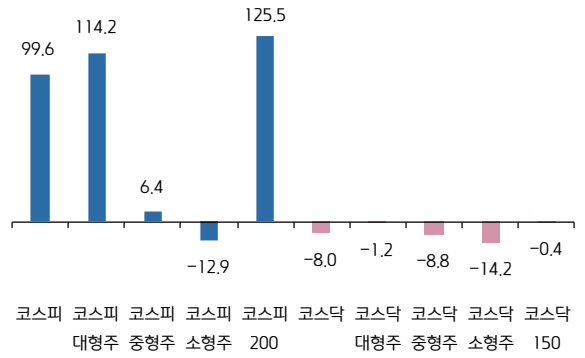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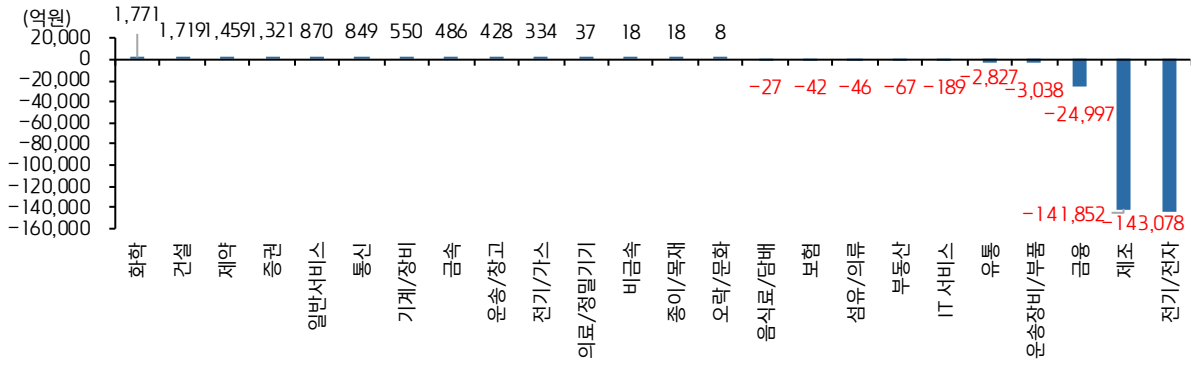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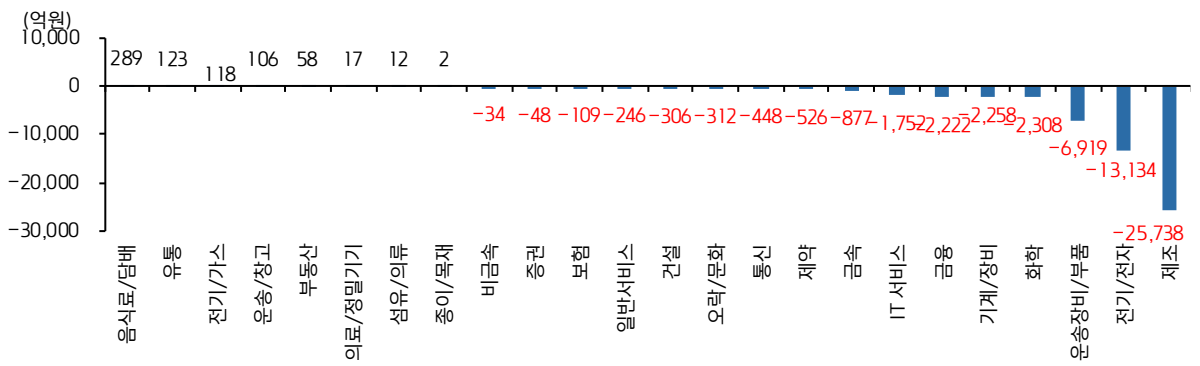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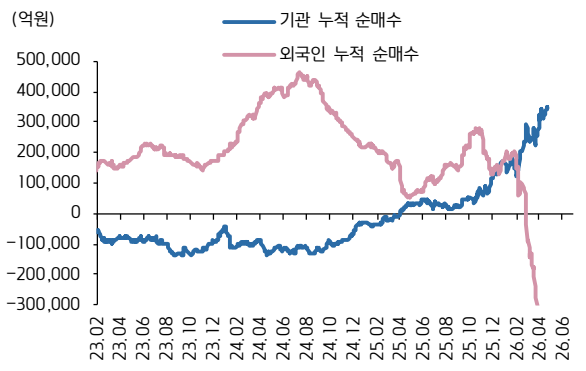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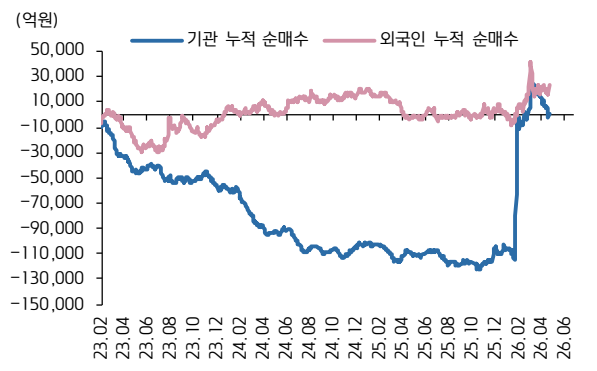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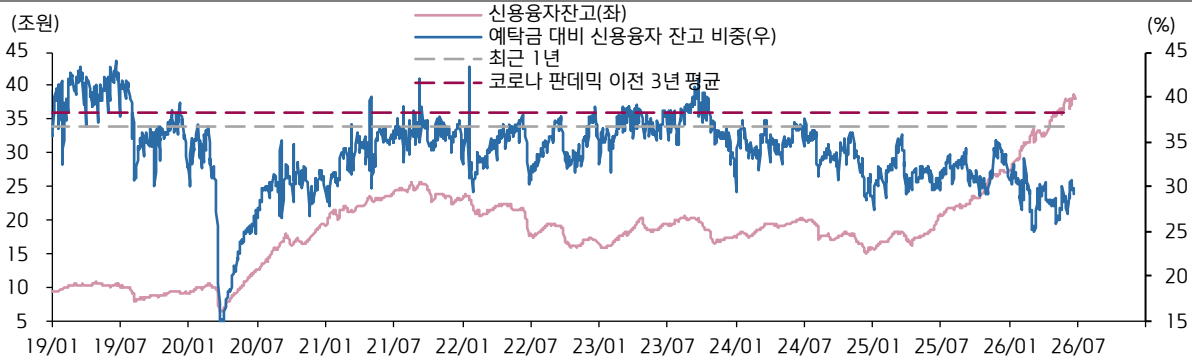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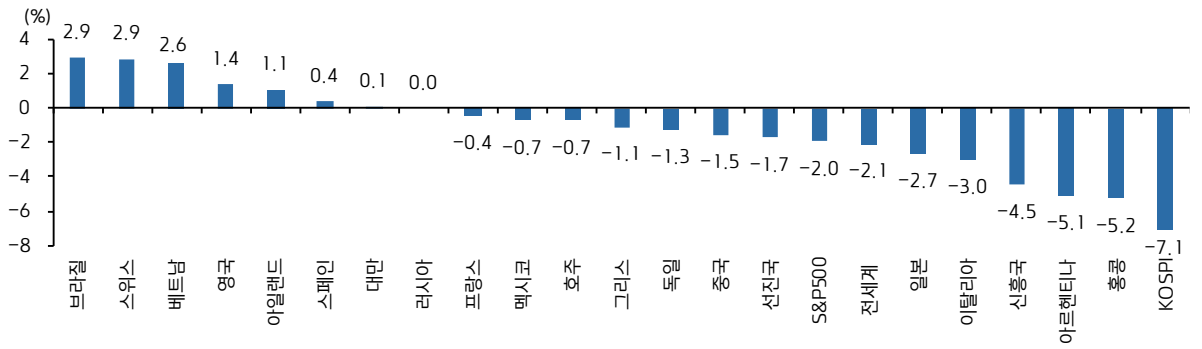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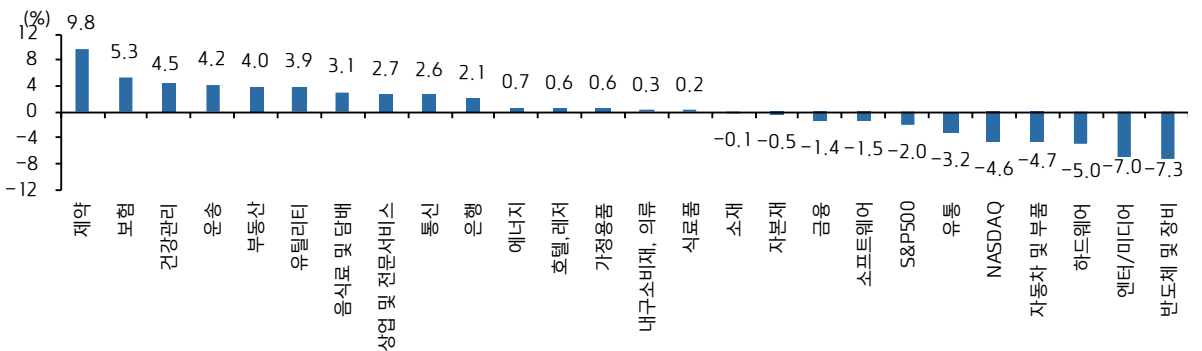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